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교실환경 변인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이 경 남*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아동의 적절한 자기통제의 발달은 아동이 장기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후 청년기나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예측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기통제가 아동의 성공적인 지적 성취 및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비해 자기통제의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통제에 어떠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의의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적 변인, 가족환경 변인 및 교실환경 변인이 자기통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자기통제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 내외통제소재, 유능감(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성취동기를, 가족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부갈등을, 교실환경 변인으로 교실의 심리사회적 변인(교사관심, 교우관계, 수업참여, 교사통제)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공립초등학교에 재학중인 5학년과 6학년의 548명의 아동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내외통제소재척도, 유능감척도, 성취동기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부부갈등척도, 교실환경척도이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신뢰도, Pearson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와 여아 모두 통제소재가 내재적일수록 학업적, 사회적, 운동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덜 통제적일수록, 부부갈등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와 여아 모두 교사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고, 교우관계가 친밀하며,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일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경우 교사가 학교규칙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할수록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아의 자기통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교실환경 변인인 수업참여였으며 그 다음 개인적 변인인 내외통제소재, 학업적 유능감의 순으로 남아의 자기통제를 예측하였다. 다섯째, 여아의 자기통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교실환경 변인인 수업참여였으며, 그 다음 개인적 변인인 성취동기, 학업적 유능감, 교실환경 변인인 교사통제, 마지막으로 가족환경 변인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순으로 여아의 자기통제를 예측하였다.